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10)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후부터 최근 서울·부산 보궐선거 과정에서 수십·백·천억 재산가들이 시장이나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선거직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재산 형성(축적)과정이 투명하지 않는 경우와 불·탈·위법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방송매체가 시끄럽다.

선거직 공직자 후보자와 정치인들이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지역)를 만들겠다'고 검증이나 예측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 내지 실천의지도 없는 공(公?)·空? 약을 남발하고 현재진행형이다. 끝내 제대로 시행되거나 개선과 개혁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추궁하면 증거자료가 빤히 있는데도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밥 먹듯하거나 손바닥 뒤집듯(如反掌) 계속한다.

공자의 '정치란 올바른 것(政在正也)'이란 말이 오히려 농담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른바 'MB정부' 시절 청와대에선 '경주 최부자의 300년 간의 훌륭한 전통을 본받으라.'고 했다는데(?), 남이나 국민들에게 훈계할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현재 범범자로 교도소 재소자)부터 제대로 좀 알았거나 스스로 깨닫고 솔선수범으로 실천했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 시절 청와대 수석이나 서울시장으로 있었던 자들이 출마하였단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만고진리인 속담조차 혀소리로 들리는 게 나만의 착각이 아닐까 바란다.

"구차스럽게 부자로 사는 것은 가난한 채로 명예를 누리는 것만 못하며, 육스러운 삶은 영광스런 죽음만 못하다."("大戴禮記"曾子制言上)라고 하였다.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얻기 위하여 인(仁)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論語"衛靈公)고 하였다. "莊子"에서는 '부나 명에 그리고 영광스런 삶과 죽음'마저도 아예 웃기는 짓이라고 태폐(唾罵)하기까지 하였다. 나이가 늙어지면 사람이 욕심을 줄이거나 버리고 형제자매와 서로 나누고 사회에 기부하며 축고 배고픈 이들과 이 한 세상을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스스로 행복해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7-80년대부터 조금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노욕(老欲)을 넘어 돈, 권력, 명예에 몰입함을 하려는 노주(老醜)에 물들고, 자손에게만 그것을 넘겨주지 못해서 다툴 안달복달이다. 그 자손들이 자신 스스로의 근면성실과 피땀 어린 노력에 의한 부귀(富貴)가 아니라면 올바른 삶과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분명한 진실은 '그 자손은 반드시 폐가망신 한다.'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시민을 '개돼지 취급'으로 하찮은 사기나 도둑

질부터 망나니짓을 한다. 그것이 인생사와 역사적 진실이다. 그러므로 노주의 욕망은 자손들에게 미래의 올바른 삶과 진정한 행복을 미리 차압(差押)해버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가장 잔인한 짓거리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한국 공직 후보자 국회청문회에서 이른바 '4대 필수과목'에 정백한 자가 과연 몇몇이 있었던가? 극소수 손꼽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정치의 근본이 민(民)이라는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경륜(經倫 : 경제 ; 經世濟民과 經國濟世)과 청렴한 지도자를 존경하며 이를 본받으려는 훌륭한 전통이 있다. 이 부분, 즉 선비사상이나 그 정신 그리고 그 실천 리더십 등을 현대적 가치로 살려내야 한다.

'나라의 원기(元氣 : 유품 기운)'인 선비가 출처(出處 : 벼슬살이하는 세상에 나아가는 출세와 세상이 혼란하면 후세를 위해 올바로 공부쳐신하며 제자교육을 함)의리(義理)를 지키고 엄정하지 못하면 백성을 가렵주구하는 왕(군주)이나 지배세력의 정치행위에 이론 제공이나 들려리가 됨으로써 그들의 죄악상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왕조가 바뀔 때 역적의 무리가 되거나 나라가 망할 때 다른 나라의 앞잡이와 매국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을 공부하고 후세를 위해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자가 이 출처에 분명하지 않으면 선비로서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제왕의 왕조·조정이나 대통령의 정부 조직에 선비·학자의 양심과 명예를 팔아먹는 꼴이 되고, 나아가 백성(민족)과 세상(국가와 세계)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역사의 거울에 반역 군림하는 비리와 악의 무리에 동조하는 어용의 칼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자도 '군자로다. 거백우(蘧伯玉)은 나라에 바른 도(道)가 행하여지면 벼슬하고, 도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물러나서 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숨어서 살았다.'("논어"위령공) 조식(曹植, 1501~1572, 호는 남명) 또한 제자들에게 말했듯 "고금의 인물들을 두루 논하여면, 반드시 그 출처를 본 연후에 그 행사특성을 논해야 한다."("南冥集"南冥行狀)면서 출처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고 엄청하고 절제하게 실천하였다.

요즘 앞서 거론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 및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 수위를 달리는 김창총장을 퇴임한 윤00에 대한 그의 파평 윤씨 족친들 사이에서 그의 9대 종조부라는 '백의정승' 윤증(尹拯, 1629~1714)의 출처의리 그리고 국민의 힘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OO(1940~)은 이제 80대 초 연배 노인으로 그의 행보가 진조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1888~1964)의 훌륭한 삶과 출처의리를 과연 계승하고 있는가?

(다음호에 계속)

신축년 태사묘 춘향대제 봉행

안동 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김효진)가 주관하는 신축년(辛丑年) 태사묘(太師廟) 춘향대제(春享大祭)가 3월 30일(음력 2월 18일 中丁日) 오전 11시 안동시 태사묘길(북문동) 태사묘(太師廟宇)에서 안동권씨, 안동 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이 자리에 권숙동(權肅東) 안동권씨안동종친회장을 비롯하여 김희동(金暉東) 안동김씨화수회장(전 안동시장), 장희경(張熙慶)

안동장씨안동종회장, 권정창(權正昌)

안동권씨대종회 제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현관 장명기(張明基), 종헌관 권영근

(權寧權), 전자(贊者) 김정동(金定東),

죽(祝) 김수원(金壽源), 장은주(張銀周),

권재규(權在奎)가 각각 업무를 맡아 1시간에 걸쳐서 흐트러짐 없이 엄숙하고 질서정연하게 춘향대제를 봉행하였다.

현관, 축관, 참제원 모두는 관복(冠服)

과 도포(道袍)로 갈아 입고 향사(享祀)

를 봉행하였으며 봉행이 끝나자 숭보당 앞 진디밭에서 단체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태사묘관리위

원회 장수식(張受植) 사무국장 사회

로 숭보당에서 <2021년도 태사묘대

당회(太師廟大堂會議)>를 개최하

였다. 초현관 김희동 도유사(都有司)

는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춘향대제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

단히 고맙다"며 "앞으로 코로나가 없

어지면 참제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김효진 태사묘

관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춘향대제

때 행사 진행 방법을 많이 배웠으며

다가오는 춘향대제 때는 행사를 잘 처

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수식 사무국

장은 "경과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은 시간 관계

상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로 대신하겠

다"고 밝혔다.

분정은 초현관 김희동(金熹東), 아



춘향대제가 끝난 후 숭보당 앞 진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2021/03/30

태사묘 숭보당에서 분정례를 하고 있다.

점심을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다가 해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근



권병근 초현관, 권혁무 아현관, 권호일 종현관, 권해옥 대종회 회장, 권갑현 대축, 권영체 찬자, 권한옥 집사(왼쪽부터)



시조 묘소 앞에서 능곡회 회원과 권오익(도포 차림)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기념 촬영

낭중공 춘향제 봉행

낭중공 춘향제는 시조 태사공 춘향제를 마친 직후 참제원이 낭중공 단소로 이동하여 권영채 찬자의 흘기기에 따라 낭중공 초현관 권병근(權丙根), 아현관 권혁무(權赫武), 종현관 권호일(權鎬一), 죽 권갑현(權甲鉉) 등 낭중공 향사를 차문하게 봉행되었다.

권병근 도유사를 비롯한 아현관, 종현관 등 낭중공 춘향제 집사자(執事

편집국장 권행완

능곡회 회원 시조 태사공 춘향제 행공

능곡회(회장 권기형) 회원들은 시조 태사공 춘향제 봉행 시 맨 앞에서

숙정(肅靜)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제수(祭需)를 운송했다.

특히 이번 춘향제는 휴일도 아닌 평

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자발적

으로 참여하여 보라색 조끼와 검은 두

건을 쓰고 안동권문의 후손답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었다.

능곡회 회원들의 숭조정신과 봉사정신의 실천은 늘 안동권문의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 능곡회 회원은 114명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문화(文獻)을 찾습니다

귀중한 문헌(文獻)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 문헌 중 한 문헌이라도 소장하고 계시는 분은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혜공(景惠公, 부정공파 16세, 휘:専, 단종 외조) 친필 가첩
2. 안동권씨 소원록溯源錄(1956년, 권계환 편저)

○ 연락처 : 千百年史편집위원회

- 위원 권태현(權兌鉉) 010~9517~1221

○ 주 소 : 우) 51616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145